

카페베네의 매거진
우리동네 Sid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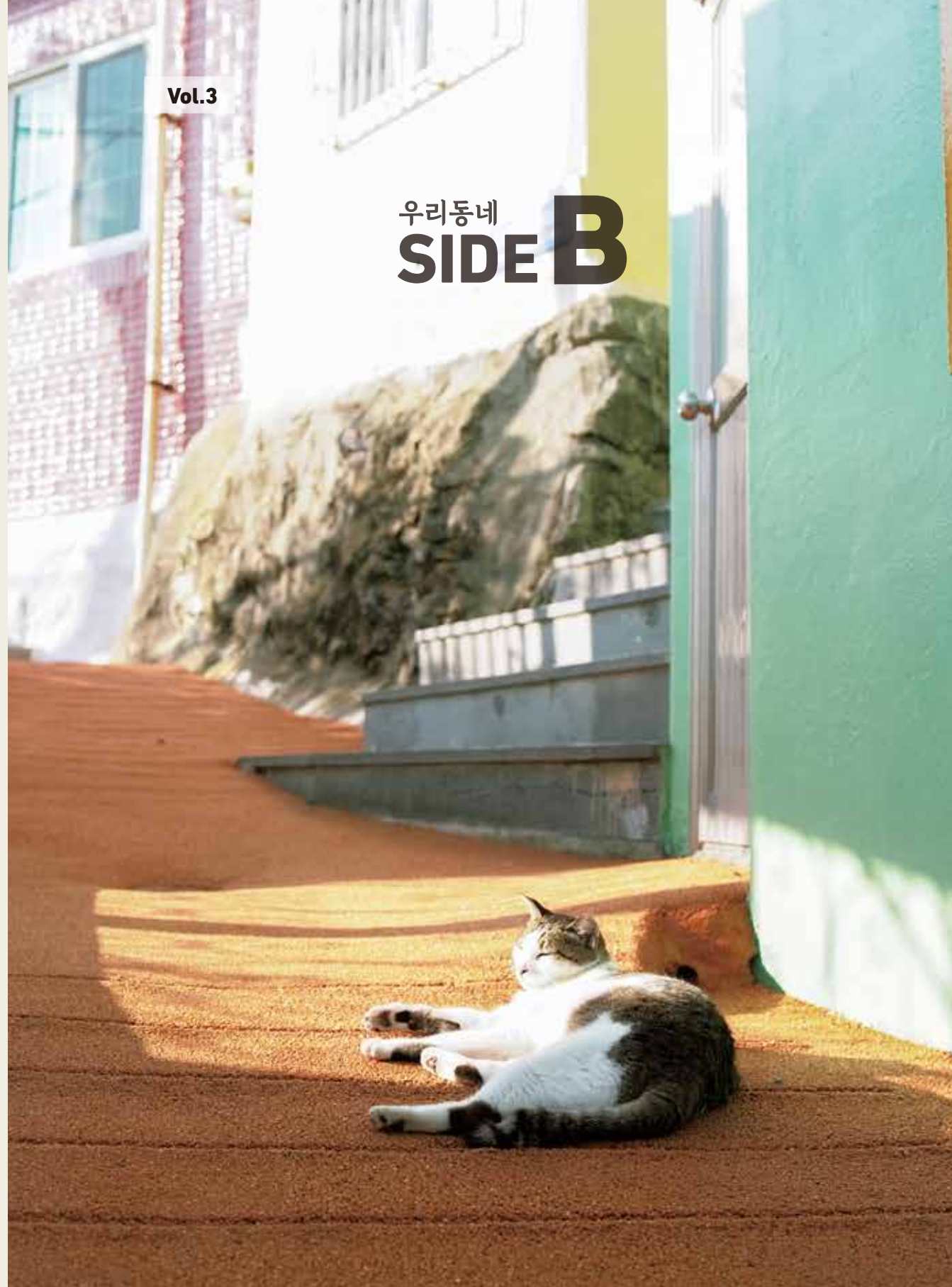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골목길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나날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보통의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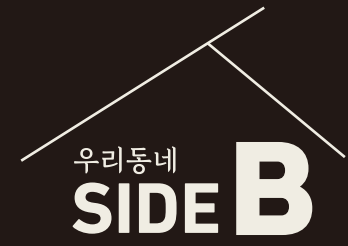
하지만 그 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소중한 이야기들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베네의 동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우리동네 Side B를
산책하듯 천천히 훑어주세요

Vol.3

우리동네
SIDE B





우리동네
SIDE B



Editorial

마음이 불안할 때는 고궁을 찾습니다.
가만히 버틴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요즘
묵묵히 오랜 기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소에 들리면 괜히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친구와 함께 창경궁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건물과 오래된 길들이 언뜻 보여주는 세월 사이에서
오랜 기간 변하지 않은 풍경을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간 변치 않았을 창경궁의 풍경 사이로
친구의 얼굴이 겹쳐 보였을 때는 문득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오래 달라지지 않을 풍경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갑자기 주변을 덮치고
주변 환경이 모두 달라지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은
창경궁이 그렇습니다. 멀리 흐르는 한강도,
당장 가까이 존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며
멈추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 버티는 것 또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새롭게 터득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카페베네는 이번 Side B vol.3의 주제를 사람으로 정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럼에도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로,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상이 일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사랑하며 곳곳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실으며
많이 행복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잡지를 읽으면서 우리 곁에 존재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엮었습니다.

읽고 계신 그 자리에
카페베네가 엮은 희망이 가닿기를 바라겠습니다.

-
에디터 오 광록

웃음을 제안합니다

글 오광록



“웃음 시간이예요. 웃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서요. 하하하!”

웃을 일이 적어질 때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제안했던 ‘웃음 시간’을 떠올린다. 선생님은 가짜 웃음이 결국 진짜 행복이 된다고 믿는 분이였다. 공부로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웃음 시간이라고 생각했는지 선생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웃음을 ‘제안’ 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억지로 웃어도 건강에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웃어봅시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아하하하!! 오호호호!!”

웃음 시간의 묘미는 민망하고 어색해서, 그 이상함이 웃겨서 자꾸만 웃음이 나온다는 점에 있는 것 아닐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을 꾸며낸다는 것, 그러나 그게 곧 진짜 웃음이 된다는 게 웃음 시간의 특징이다. 그 시간은 스스로 웃음을 만들기에 그 행동 자체도 특이한데 남을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웃기다. 언제나 출발은 비슷하다.

“하...하...” 조용하고 작게 웃다가 옆 친구의 웃음소리가 커지면 나도 모르게 “하! 하! 호! 호!” 하고 힘차게 웃게 된다.

물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우리가 정말 크게 웃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시간에 정말 진심이였다. 옆에 있는 친구가 조용하게 책상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웃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도 웃겼다. 웃음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홀로 웃는 우스꽝스러움에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웃음 또한 전염되는 것은 아닐까? 확실한 건 다른 사람의 웃음이 나의 기쁨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모이니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나는 사실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는 사람을 보는 것조차 즐겁다.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회에서, 가끔 웃음은 규칙에서 예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여전히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건 어두운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많다. 그런 것들은 보통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분명하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이다.

웃음 시간에 배운 것도 있었다. 웃음은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사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나에게 웃음을 건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많은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해 웃음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웃음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우리는 분명하게도 스스로를 웃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웃음 시간은 내가 지금 머무르는 방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웃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근심 염려 불안은 원인을 궁금해하지만 기쁨이나 행복은 이유도 모른 채 지나가게 내버려 둔다. 하지만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한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더 많이 웃었던 것 같다. 좀처럼 웃을 일 없는 요즘 웃음은 이제 숨바꼭질처럼 찾아야만 하는 성질의 무엇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어제 잘 웃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때 친구가 혼자 말하고 혼자 웃는 나를 보며 “자급자족 개그 하니?” 라고 웃으며 물은 적이 있었다. 그 말 자체가 정말 웃겼는데, 지금은 웃음에도 자급자족이 필요한 때라고 믿는다. 웃음은 나 스스로의 의지이자 선택일 때가 많다. 내가 즐겁게 산다고 선언하는 것은 더 많이 웃겠다는 말과 닮아 있다.

웃음을 제안할 수 있다니.

문득 돌이켜본 추억이 신기하게 여겨졌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렇게 웃음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제안해보는 것이다.

“오늘 한 번 웃음 시간 가져보실래요? 하하하!”



사진 성상현

”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억지로 웃어도 건강에 좋아요.
우리 다 같이 웃어봅시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아하하하!! 오호호호!! ”

시시콜콜 인터뷰

어떤 것을 좋아하세요?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하셨나요?

'나'를 위한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요.

어쩌면 우리의 행복은
달콤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한 잔 마시는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 재생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즐거운 일을 하루하루 챙기는 버릇,
요즘 같은 때에 더욱 필요한 건강한 습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카페베네 직원들의 시시콜콜한 '요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말 시시콜콜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웃음)



재무기획팀 임수연 (aka 카페베네 프로듀서)

가장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요?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2015년부터 뛰었으니 지금 5-6년 된 거 같네요. 그렇다고 엄청 많이 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 꾸준히 뛰고 있어요. 일단 이번 주에 친구랑 10km 뛰기로 했어요. 대회는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가장 길게 뛰어본 건 30km 정도예요.

와 마라톤이라니 멋져요! 마라톤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라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오롯이 나예요. 뭘 땀 항상 처음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길을 혼자 다 뚫는 건 내가 그 고통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내는 거잖아요. 완주를 하면 그 고통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마라톤은 마치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마라톤은 취미지 스트레스 해소량은 별개인 거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는...음...운동복 쇼핑?(웃음)

인터뷰 하고 있는 지금! 퇴근하고 가장 하고 싶은 건?

닭발! 닭발 먹고 싶네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제 닭발 단골집은 청량리에 을지골뱅이집인데 여기 정말 추천해요. 인위적인 매운 맛이 아니라 할머니의 그 깊은 매운 맛. 강추합니다.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카페베네 메뉴!

아이스 베리 딸기 티오. 부담스럽지 않은 단 맛이 좋아요. 그 위에 물을 타서 오래 마실 수 있단점도 좋고. 아! 이런 더운 날엔 얼음이 녹아도 맛있답니다.

메뉴개발팀 이한별 (aka 카페베네 강형욱)

한별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제 친인니요. 저랑 언니랑 12살 차이, 띠동갑이에요. 나이차가 좀 나다 보니까 언니가 거의 저를 키우다시피 했죠. 제 유치원, 초등학교 졸업식 모두 언니가 와서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집에선 티를 정말 안 내지만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보고 있나!)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보다 잘 한다 생각하는 거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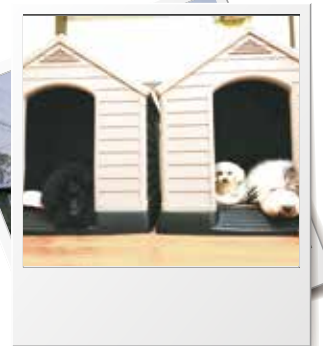
저희 집에 강아지가 3마리 있는데 산책을 못 하는 날엔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해서 집에서 난리를 치거든요. 전 그 에너지를 5분 만에 다 쓰게 할 수 있어요. 비법은 내가 강아지가 됐다 생각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웃음) 그리고 나면 아주 조용하게 곤히 잘 자요.

나만의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아이슬란드를 꼭 가보고 싶어요. 사실 29살 마지막쯤에 아이슬란드를 가서 해가 넘어가면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그건 아쉽게도 못 할 것 같아서 39살에 가고 싶어요. 39살 12월 말에 가서 12월 31일 저녁으로 꽃보다 청춘에 나왔던 핫도그를 먹고 40살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땐 갈 수 있겠죠?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카페베네 메뉴!

콜드브루 디카페인 라떼 강추! 디카페인 원두의 단 맛 라떼를 만나면 극대화되어 시럽을 넣지 않아도 달콤한 맛이 나요. 카페인이 걱정될 때 꼭 한 번 드셔보세요.



영업팀 이진 (aka 카페베네 프로서생러)

요즘 가장 빠져있는 것이 있나요?

퇴근하고 집에서 스도쿠 하는 거에 빠져 있어요. 원래부터 그런 걸 좋아해서 어릴 때 CA 시간에 퍼즐, 직소, 스도쿠 했었거든요. 그 기억이 나서 서점에서 스도쿠 책을 사서 하고 있어요.

스도쿠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하면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스도쿠를 하면 숫자에만 집중하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잡념도 사라지고 마음도 비워지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있나요?

힘들 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혼자 산책을 해요.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땐 편의점에서 초콜릿이 들어간 걸 잔뜩 사서 다 먹어요. 그냥 초콜릿이든 과자든 아이스크림이든 종류는 상관없어요. 단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소원 딱 하나만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보고 싶어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아쉽게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못 가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1년 살았던 기억이 정말 좋아서 부모님 모시고 꼭 한 번 뉴질랜드에 가서 멋진 자연 경관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카페베네 최애 메뉴는?

최애 메뉴를 고를 수 없어요. 카페베네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메뉴 나오면 꼭 다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영업팀 강성민 (aka 카페베네 트래블러)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해외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까지 12개국을 여행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여행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유튜브로 대리 여행 하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12개국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형들이랑 넷이서 태국에서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등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4일 전까지 다녀와서 그러니까 그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시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으세요?

그 때 그 멤버들과 같이 동유럽으로 가보고 싶네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성민님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은?

빨래하기 전에 주머니에서 나뉠 몰랐던 돈이 나올 때 그 때 정말 좋더라고요. (웃음)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카페베네 메뉴!

히비스커스 티 에이드랑 얼그레이 티를 추천합니다. 깔끔하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인테리어팀 김선미 (aka 카페베네 동네탐방러)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걷기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무작정 걷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저희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항상 새로운 길로 다녀보려고 노력해요. 운동을 하러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안 가봤던 길로 가면 마치 새로운 동네에 살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요즘은 퇴근하고 엄마랑 집 뒤에 있는 뒷산을 걸을 때가 참 좋아요. 저녁 같이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는데 산책길이 정말 이쁘거든요. (인증샷은 옆에)

선미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는 무엇인가요?

식상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요. 예전에는 친구랑 나가서 노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부모님과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요. 어디 가서 혼자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부모님과 와야겠다' 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포장이 가능한 건 종종 사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럴 때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전 그냥 '엄마는 이런 말거나 느끼한 거 안 좋아할 거야' 라고 단정지어 생각했는데 사서 갖다 드리니까 정말 맛있게 잘 드시는 거예요. 그때 '아 엄마도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구나. 엄마도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많이 사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카페베네 메뉴!

카페인 충전도 당 충전도! 다 할 수 있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추천해요.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오광록 (aka 카페베네 호기심천국)

나만의 소소하고 확실하고 엄청난 행복! 소개해주세요

그날의 감성에 맞는 곡으로 방안을 가득 채워놓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클래식을 들으며 글을 쓸 때도 있고, 방문을 닫아놓고 혼자서 신나게 춤을 출 때도 있어요. 사실 무슨 춤인지는 몰라요. 친구와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막 혼자 춤을 추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걸 보더니 "너 참작 안무하니?" 라고 말하며 엄청 웃더라고요. (웃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것 있을까요?

이런 말 하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웃음) 케이팝 이요. 제가 예전부터 장르를 가리지 않아서 땡~ 소리만 나도 오 음악이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케이팝이 참 좋아요. 다들 노래도 잘 부르고 퍼포먼스도 뛰어나서 무대 영상이나 뮤직비디오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혹시 있을까요

배워보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중에서 몇 개만 고르자면 음... 일단 철학이나 인문학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가고 싶어요. 어려운데 정답이 없어서 오히려 안심이 되는 기분이예요. 또 미술이나 디자인 같은 부분도 배워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곳은 아프리카요.

카페베네 최애 메뉴는?


저는 콜드브루 헤이즐넛 라떼요! 고소하고 달달한 헤이즐넛 시럽이 화사한 콜드브루랑 잘 어울려요. 배가 고플 땐 포만감이 있는 오크라떼도 좋아합니다.



a.k.a 카페베네 호기심천국 플레이리스트



산나는 - f(x) - 4 Walls
새해의 시작을 함께 - Arco - Happy New Year
그림에도 희망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나의
첫
카페베네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듯,
우리는 같은 장소를 들리더라도
자신만의 '첫' 기억을 갖게 됩니다

카페베네는 궁금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카페베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고요

빙수 맛집일 수도 있고,
알바의 공간이 될 수도,
연애가 시작된 장소,
출근의 시작을 함께했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공간

카페베네는 여러분의 기억 한편의
한 조각으로 자리할 수 있어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처음이기에 떨리고,
처음이기에 더 설렜던 그 순간

여러분의 첫 카페베네 기억하시나요?

Benepisode 1

카페베네는 저와 남편의 첫 데이트 장소였어요
 늦은 밤 알바를 끝내고 급하게 카페베네를 갔을 때,
 책을 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아무리 많은 장소를 가더라도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잖아요
 남편과 함께 만난 첫 장소가
 카페베네였기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 단둘이 만나 오랜 대화를 나누던 곳 카페베네!
 저와 남편의 첫 장소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동네의 든든한 장소가 되어주세요!



Benepisode 3

19살,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베네로 가 빙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곳에 담임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당시엔 너무 놀라 빙수도 남겼지만
 친구들과의 학교로 돌아가며 많이 웃은 기억이 나요
 그때의 특별한 기억이 얽혀 저의 첫 카페베네는
 추억의 장소로 기억됐어요
 입안 가득 빙수를 머금고
 학교까지 달리던 길도 종종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친구들과 모여 카페베네에서 빙수를 먹고 싶네요!
 빙수 맛집 카페베네!
 우리의 추억을 유지할 수 있게 오래 함께해 주세요!

Benepisod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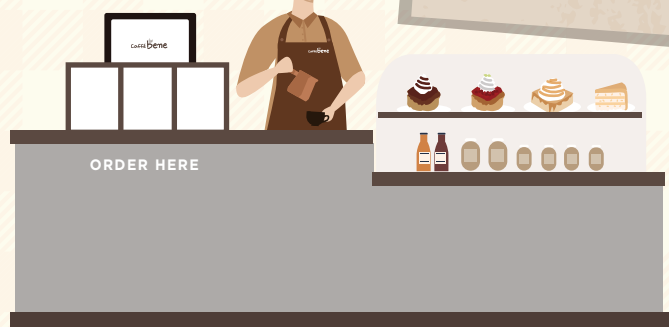
저의 첫 카페베네는 10년 전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였어요
 오래 일하고 싶어 레시피를 하루 만에 외워가기도 했죠
 헤어짐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보다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훨씬 많아서 만족스러운 나의 첫 카페베네였습니다
 그때 만난 좋은 사람들과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중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카페베네!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세요

Benepisode 4

저는 늘 카페베네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상이 '나의 첫 카페베네' 였답니다!
 제가 스무 살 때 처음으로 취직을 하고
 전철에서 왕복 세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 긴 시간의 끝에 언제나 카페베네가 있어서 고마웠어요
 출근길 한 잔의 커피가 제게
 확실한 행복을 보장해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출근 전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고 싶은 장소,
 그날의 기쁨을 가장 적절한 온도로
 건넬었던 장소, 카페베네
 그런 카페베네를 생각하면 나의 첫 직장이,
 나의 카페베네가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시작을 함께해 준
 든든한 존재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시작을 함께해 주세요



coffee	ice flakes	coffee	ice flakes
latte	sparkling ade	latte	sparkling ade





Benepisode 3

19살,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카페베네로 가 빙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곳에 담임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당시엔 너무 놀라 빙수도 남겼지만 친구들과의 학교로 돌아가며 많이 웃은 기억이 나요
 그때의 특별한 기억이 얽혀 저의 첫 카페베네는 추억의 장소로 기억됐어요
 입안 가득 빙수를 머금고 학교까지 달리던 길도 종종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친구들과 모여 카페베네에서 빙수를 먹고 싶네요!
 빙수 맛집 카페베네!
 우리의 추억을 유지할 수 있게 오래 함께해 주세요!

Benepisode 4

저는 늘 카페베네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상이 '나의 첫 카페베네' 였답니다!
 제가 스무 살 때 처음으로 취직을 하고 전철에서 왕복 세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 긴 시간의 끝에 언제나 카페베네가 있어서 고마웠어요
 출근길 한 잔의 커피가 제게 확실한 행복을 보장해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출근 전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고 싶은 장소, 그날의 기쁨을 가장 적절한 온도로 건넬수었던 장소, 카페베네
 그런 카페베네를 생각하면 나의 첫 직장이, 나의 카페베네가 생각납니다
 사회 초년생의 시작을 함께해 준 든든한 존재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시작을 함께해 주세요





일상의 위로

글 배정운

Unspash.com.jp

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만남 뒤에는 꼭 혼자만의 휴식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 가면 급제 기운이 바닥나 다크서클을 받을까까지 끌어내리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좁디좁은 인간관계는 내가 아끼고 아끼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 물론 언제까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다. 당연하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생긴다. 달갑지 않은 사람과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야 할 일도, 마음이 상할 일도 생긴다.

그런 날이 있다. 별것 아닌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사소한 말에 가시가 느껴질 때.

얼마 전, 회사에서 다른 팀의 팀장님과 처음으로 일을 함께 하게 됐다. 요청 사항이 들어오면 내 쪽에서 수정하고 테스트해서 팀장님한테 넘기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넘기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서 돌아왔다. 몇 번씩 반복되다 보니 서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던 차에 그 팀장님한테 한 소리를 듣게 됐다. 별 것 아닌 일과 별 것 아닌 말. 예민했던 탓인지 말의 뉘앙스가 가지처럼 느껴졌다. 평소였다면 잘 넘겼을 텐데 그 날은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말 마디 마디를 곱씹으면서 울분도 차곡차곡 쌓였다.

그런 날도 있다. 익숙한 일상이 새삼스럽게 위로가 될 때.

그날 마침 퇴근길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늘 쌓였던 울분이 서러움이 돼서 흘렀다. 친구는 전후 사정을 몰라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다. 이상하게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는데, 휴대폰 액정에 보이는 이름에 마음이 풀렸다.

일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사실 늘 큰 존재였는데 많은 경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날 전화를 끊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같은 크기의 위로를 건넬 수 있었으면. 꼭 내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바라게 된다.

요즘엔 안 힘든 사람이 없다. 크든 작든 저마다 각자의 문제를 업고 살아간다. 글을 쓰다가 문득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있으면 지나갈 작은 문제만 있길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거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혹은 위로가 되는 일상이 있기를 바란다.

Barista Interview

서울로 카페b 바리스타
최현일 바리스타님



Q1.안녕하세요 카페b 최현일 바리스타님, 간단한 본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베네 카페b 바리스타 최현일입니다. 커피와는 7년, 카페베네와는 거의 5년 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페b는 현재 1년 차예요 어찌다 보니 20대의 절반 가까운 세월을 카페베네와 보내게 됐습니다. (웃음)

Q2.카페베네 바리스타로 일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2015년에 카페b 오픈 멤버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페셜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달간 커피에만 집중하면서 바리스타로서의 역량 또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우면서 커피가 참 재밌고 좋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부쩍 더 관심이 생겨 바리스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Q3.일하면서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저는 아침에 문을 열 때가 가장 좋아요. 오픈 준비를 하며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곧 손님이 온다는 설렘 또한 느낄 수 있는 건 아침이 유일하거든요. 그때는 평소보다 음악을 살짝 더 크게 틀어놔요. 기분 좋게 일하기 위해 텐션을 좀 높여보는 거죠. (웃음)
아침은 정말 하루의 시작이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와 같은 멘트에도 진정성이 잘 담기더라고요. 손님들이 만족하며 아침에 나가실 때 소소한 행복을 느껴요.



Q4.바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을 말해주실래요?

매장을 제대로 열 수 없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 있었거든요. 방문하고 찾아주시는 고객들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없다는 게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딱히 힘든 게 없었습니다. 처음엔 방역 수칙 안내 등으로 인해 어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Q5.바리스타가 되기 전 모습과 실제 바리스타로서 일할 때의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처음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에 '바리스타' 라고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에게 '바리스타' 라는 직책을 부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를 내리는 '직업' 을 가졌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우선 생겼고요. 확실히 소통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죠!" 이랬다면 요즘은 변화하는 주문 트렌드에 맞춰 손님들 취향을 물어보는 적극성을 갖췄답니다. (웃음)



Q6.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인상 깊어요 매일매일이 인상 깊은 순간이죠. 하루를 채우는 작은 감동들이 있고, 그런 소소한 감동이 쌓이다 보면 결국 큰 감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손님이 분실한 카드를 찾아드리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그날의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날 제가 머무르는 장소에서 가장 최적화된 온도를 손님에게 건네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믿어요. 제게 감동을 준 손님들도 많지만, 제가 고객님들께 더 많은 감동을 드렸으면 합니다.

Q7.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점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도심 속을 걷고 싶을 때, 여기만큼 좋은 곳이 있을까요? 카페b 바로 앞에는 서울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음료 한 잔 미니 스콘 하나 들고 산책하면서 잠깐씩 먹으면 세상 달콤한 기분이죠. 지금은 그렇게 먹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젠가 걸으면서 간식을 먹고 편안하게 쉬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남산도서관까지 걸어도 좋아요. 산책 코스가 딱 있는 매장이죠!



Q8. 앞으로의 1년, 하고 싶은 일 또는 개인적 목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을 이끌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것에 손님들이 공감해주시고 주문을 추천을 했을 때 "진짜 먹고싶대!" 이렇게 사람을 말로써 끌어당기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커피를 어떻게 더 맛있게 보다는 이미 맛있는 존재하는 커피를 어떤 가치로 전달해드릴까 고민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심 그대로 맛있는 커피도 팔고 손님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나가고 싶습니다.

Barista Interview

성수동 카페베네 바리스타
이예슬 바리스타님



Q1. 안녕하세요 이예슬 바리스타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베네 바리스타 이예슬입니다.
학교에서는 외식 경력을 전공했어요!
커피나 외식 업종으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살 때부터 근무를 해서 경력 연차로 따지면 벌써 6-7년쯤 되었어요.

Q2. 카페베네 직원으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저는 작년 2020년 8월 입사를 했어요. 성수동 오픈 멤버였죠.
성수동 매장과 모든 걸 다 같이해서 추억이 남드립니다.
생기는 과정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함께 지켜봤는데
이제 성수동 카페베네의 성장 드라마를 찍어도 될 기세예요. (웃음)

Q3. 어떤 계기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되었나요?

저는 배우고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아요.
카페베네에서 바리스타를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한 배움을 원하는 제 갈등을 해소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관리직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슈퍼바이저 업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부분이 참
고마웠죠.



Q4. 일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을 말해주세요!

저희 실수로 다른 메뉴를 고객님의게 배달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손님께서 계속 찾아주셨고, 죄송한 마음에
이것저것 더 세심하게 챙겨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 단골손님이 되셨더라고요!
항상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마지막엔 손편지까지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희 다 감동했습니다.



Q5. 요즘 일은 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잠깐 고려대중앙광장점에 지원 나갔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고객님 체온을 다 재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어본 손님이 계셨어요.
이마에 재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때문에 살짝 소통에서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Q6. 성수동 카페베네에서 마주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마침 인터뷰 전 날에 촬영이 있었어요.
공익 광고 촬영이었는데 세상에! 유명한 가수가 온 거예요!
인연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웃음)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장난도 쳐주시고 엄청 매너가 좋았어요.
그분께서 커피도 너무 맛있고 매장도 예쁘다고 해서 기분 좋았답니다.

**Q7. 카페베네에 그분 편 많이 생겼었어요.
그럼 이왕 매장 얘기 한 김에 우리 매장 자랑타임 한 번 가져보도록 해요!**

플딩 도어가 예뻐요. 창이 진짜 예쁘고요.
자꾸 예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사실
매장 자체가 예쁜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에요!
강아지와 함께 와도 밖에서 테이크아웃 하실 수 있어요.
음료 제조하는 곳 옆으로 난 예쁜 창이 있는데요.
언제든 그쪽으로 카드를 건네주시면 저희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Q8. 바리스타님의 최애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라즈베리 에이드가 최고 맛있어요!
젤라또랑 음료를 같이 섞어 마시는 메뉴인데,
밑에 깔리는 음료 베이스와 젤라또가 환상의 궁합이에요!
라즈베리 과육도 들어가서 씹는 맛이 아주 좋아요.
새콤달달 라즈베리 에이드를 추천합니다!



Q9. 앞으로의 1년을 그려보신다면?

저는 슈퍼바이저가 돼서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매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매장 고충들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매출이 늘어나는지 효과적으로 전달해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커피 시장 안에서 트렌드를 읽는 것을 넘어 흐름을 선도하는 사람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사를 계속 이어나가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베네캣
꿈★은 이루어 진다



- END -



베네짱 (@benezzang)

"그림을 그리는 일이 제 일상생활 중 가장 활력이 되는 시간이에요"

카페베네 대전은행동점에서 일하고 계신 베네짱 정가현님은 베네캣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열렬한 관심으로 일러스트를 그리며 고객 여러분들과 새롭게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베네캣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 그린 베네짱 정가현님의 "베네캣 꿈은 이루어진다" 이야기로 오늘의 일상에 재미를 더해보세요!



사진 이보라



우	리	삼	은	매	일	한	조	각	부	족	하	다	가	도
딱	그	만	큼	이	면	충	분	해	진	다	.			

이나, 식후감상문 中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버들이 이야기



사진 이보라

내 이름은 버들이

세상을 밝게 사는 강아지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인과 버들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들이 엄마 허규선입니다.
버들이는 추정 나이 5살의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엘이예요,
2020년 12월에 만나서 4달째 지지고 부고 있어요.

버들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하다가 지어주시게 된 건가요?

사실 이름을 지어준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버들이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청각과 후각에 의존하는데
내가 굳이 이름을 바꿔서 혼란을 줄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버들이는 정말 버들이 같았어요.(웃음)
잘 어울리고, 이름도 예뻐서 그대로 버들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버들이가 번식장에서 버려져 구조된 아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버들이는 처음 발견됐을 때 철창 안에
얼마나 오래 앉아있었던지 엉덩이에 남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배도 엄청 처져 있었구요,
병원에서는 당시 버들의 몸 상태를 보고 번식장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혹시 나이 추측이 어려워 추정 나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추정 나이는 체력이나 외관 모습 등을 가지고
병원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한 나이예요,
버들이는 처음 구조되었을 때 스케일링 받고 버려진 거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치아가 정말 좋았대요,
치아만 봤을 때는 2살 정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버들이는 번식 농장에서 새끼를 정말 많이 낳다가 버려졌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체력 나이까지 고려하면 10살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추정 나이로만 가능해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확실한 건 아니예요,
그런 농장들은 당연하게도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저급 음식들만 제공해주요,
버들의 체력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지금도 약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5살 정도라고 추정돼요, 하지만 행동을 보면 더 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eodul yi



입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사실 처음부터 유기견을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양을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유기견들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게 어떨까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에 대해 찾아봤는데 그 실태를 알고 나니 분양이 아니라 꼭 입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입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선택된 아이가 되는 것이니까요.



버들이 입양을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버들이는 인스타그램 유기견 계정에서 처음 보았어요. 보자마자 바로 데리고 와야겠다고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버들을 위해서도 신중해야 하니까요.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된 건 우연히 버들이 관련한 글을 보고 난 후였어요.

"국내 입양이 되지 않으면 해외로 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눈이 보이지 않고, 비행기를 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 글을 읽다가 버들이가 처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임시보호자 분과 두 달간 연락하면서 버들에게 대해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가족에게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죠.

버들이 좋아하는 것은?

간식이요! (웃음) 간식은 가리지 않고 다 먹고 좋아해요.

버들을 위한 버들 가족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있을까요?

청각과 후각 위주로 소통을 했어요. 버들이가 다른 강아지들과는 다르게 눈이 안 보이다 보니 냄새나 터치로 활용해 소통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버들이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름을 부를 때는 억양을 조금 더 높여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버들이로 우리 가족이 바뀐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구들이 모여 앉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각자 출퇴근 시간도, 쉬는 날도 다르니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데요. 버들이가 오고 나서는 한 번씩이라도 거실로 나와요. 지금은 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버들이가 바뀐 점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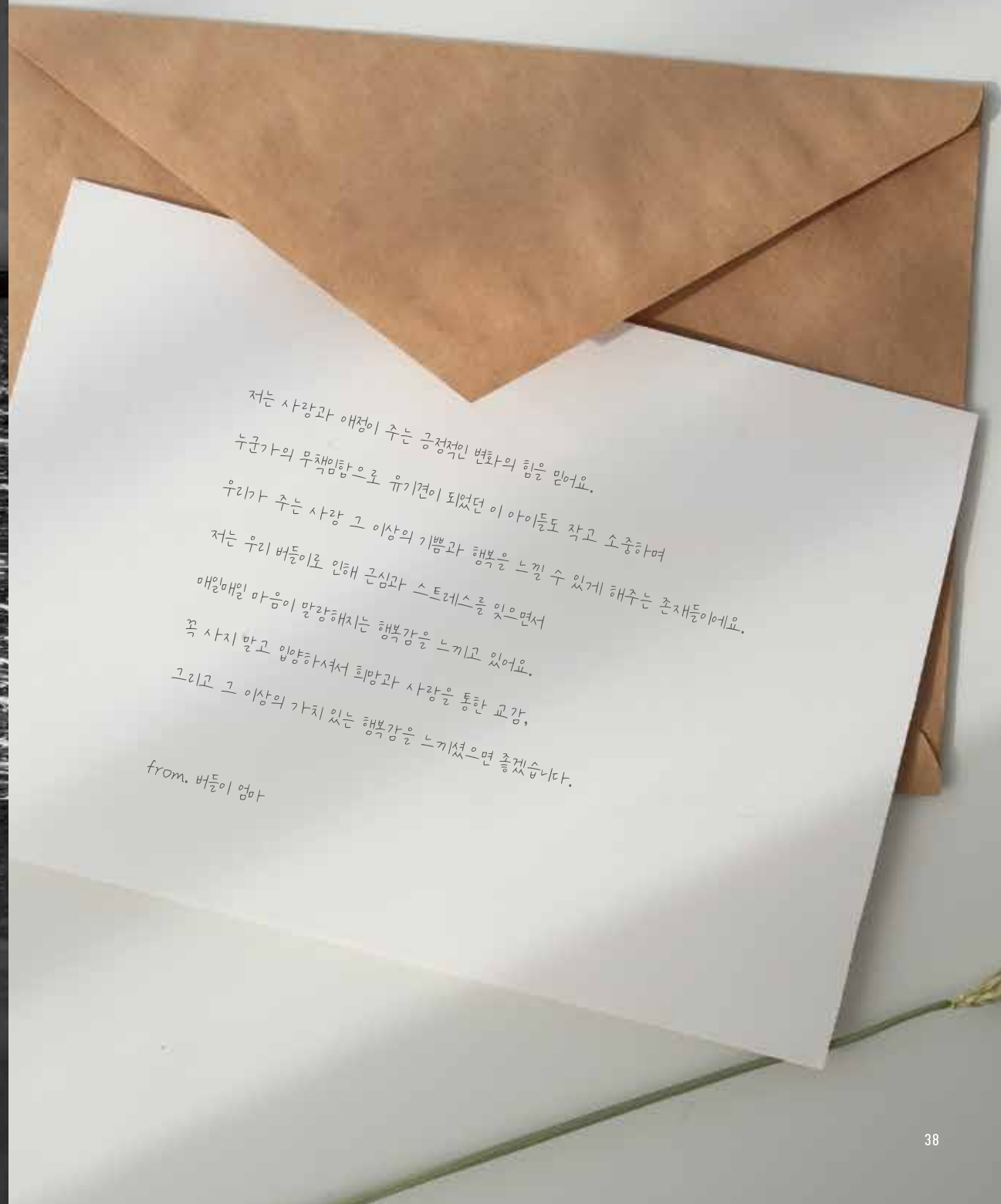
얼마 전 임시보호자분을 만났는데 전에 비해 털에 윤기가 돌고 모양이 풍성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버들이가 제 사랑에 응답해 준 것 같아 기뻐요. 저는 그동안 식사에 특히 신경을 썼어요. 현재는 생식을 주로 먹고 있고요. 버들의 체력이 약하다 보니 생고기예 아채, 영양제 등을 골고루 섞어서 주고 눈 건강을 위해 매일 블루베리도 챙겨줘요. 버들이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 장애가 생겼지만 당당했고 사람들의 사랑을 즐겁게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 낙천적인 모습은 여전해요.



난 가끔 걱정이 돼 세상이 너와 날 외면할 때
 그대 사실 난 겁쟁이야 좀 예민하고 소심할 뿐인데
 하지만 괜찮아 넌 유일한 내 편
 다시 태어나면 내가 먼저 널 안아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약속해
 이렇게 네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 주면서 웃어줘
 함께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콩드, Your Dog Loves You 中

Unsplash (@mydoor)



저는 사랑과 애정이 주는 긍정적인 변화의 힘을 믿어요.
 누군가의 무책임함으로 유기견이 되었던 아이들도 작고 소중한
 우리가 주는 사랑 그 이상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우리 버들이오 인해 근심과 스트레스를 잊으면서
 매일매일 마음이 맑아해지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꼭 사지 말고 입양하셔서 희망과 사랑을 통한 교감,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from. 버들이 엄마

우리는 때로 작은 설렘으로 아주 힘든 날을 버티기도 한다

글 임도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사람'이 주는 설렘일지 모른다.

유난히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나의 발걸음을 학교로 가까이 옮기게 하는 것은 그 아이였다.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늘도 등굣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칠 것 같았다.
그 애는 어김없이 다리미로 잘 다려진 교복을 입고 걸어왔다.
버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말끔한 얼굴을 한 그 애의 모습만 빛나 보였다.
사실은 심장 떨릴 만큼 설렘으면서 표정을 소중하게 숨겼다.
무심하게 보이고 싶어서였다.

나는 학교에서 '그 애를 마주치는 순간'을 아주 의식한 채로 존재했다.
다른 반 친구를 보러 갈 때는 그 애가 있을까 괜히 남의 교실 안을 들여다봤다.
또, 반별 이동 수업을 하러 갈 때는 복도에서 그 애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마주치기도 전에 설레버렸다.

그때의 소원은 그 아이를 마주치는 것을 넘어 그 애와 한번 마주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주 보기'는 실로 엄청난 행동이다.
마주 보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이어야만 마주 보기를 할 수 있다.
마주 보지 않기→힐끗 보기→반만 보기→마주 보기 같은 점진적인 과정은 없다.
마주 볼 수 있는 사이일 때만 비로소 마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애와의 마주 보기는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사실 그 아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아는 것은 고작 같은 학교라는 것, 2학년 7반이라는 것,
버스로 등교한다는 것뿐이었다.
그 애를 알아서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다.
단지 그 애의 말갭던 얼굴, 잘 다려진 교복, 무심한 듯한 분위기가 좋았다.
무엇보다 내가 느끼는 설렘 그 자체가 좋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뒤, 그 애와 우연히 문자를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 애의 문자 말투는 무척 가벼웠다.
신비감이 사라졌다. 금세 마음이 식었다.
이렇게 그 아이는 지난날의 허무했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애는 나를 기대하게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아침마다 그 애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에 설레는 추억 한 조각을 남길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사람'이 주는 설렘일지 모른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친 일상 속에서 새콤달콤한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약간의 설렘에 기대어 우리는 아주 힘든 날들을 버티기도 한다.



Unsplash (@xanong_photo)

한 ‘사람’

글 김하영

나는 어렸을 적 엄마가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오빠와 나에게 대하는 말투부터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님은 모두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엄마는 나를 이해시켜주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나는 사춘기를 맞으며 점점 뼈뿔어졌다. 엄마가 나만 바라보고 있던 적이 있었다. 재수학원을 갔을 때였다. 엄마는 매일 출근하면서도 1년 동안 점심, 저녁 도시락 두 끼를 싸주셨다. “밖에서 사 먹으면 든든하지 않아.” 엄마는 반창고처럼 힘든 내색 없이 내게 붙어 있어 주었다.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 것도 잠시, 재수시절에 군대를 간 오빠가 곧 돌아왔다. 나는 다시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작년에는 매일 이어지는 오빠의 결혼 이야기 속에서 소외됐다. 나는 자주 미운 감정을 표현했고, 맞받아치는 엄마의 표현은 나이에 따라 점점 약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얼굴을 못 봤네, 저녁에 일찍 와? 과일 주문했어. 같이 사는데 매일 통화를 한다. 그동안 잘못된 시선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건강했던 나와 달리 얌전하고 몸이 약했던 오빠. 엄마는 일찍이 두 자식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키웠다. 욕심이 많았던 나는 엄마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잊은 채 오빠에게 주는 사랑까지 뺏어오고 싶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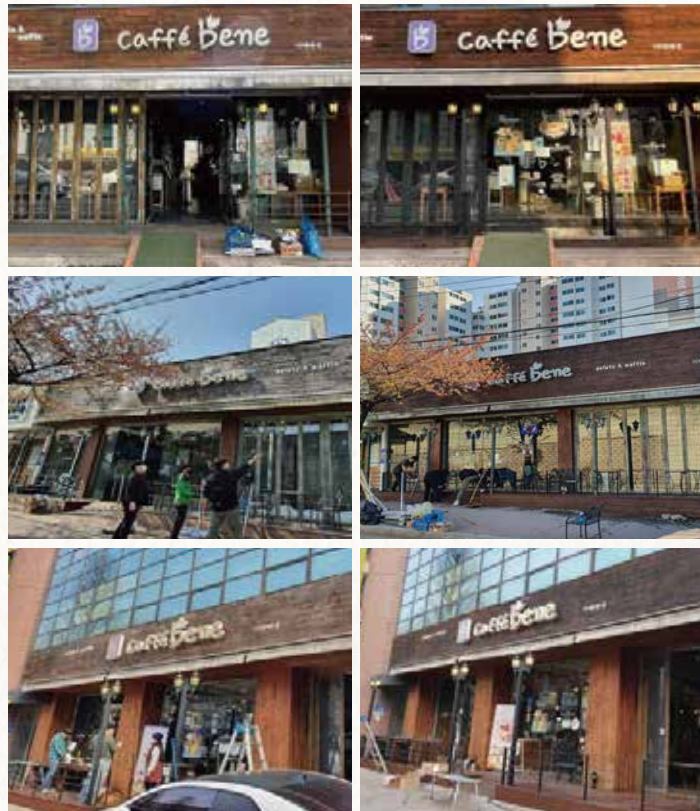


대학생 시절 모성간호학을 수강할 때 어머니께 임신과 출생의 과정을 직접 인터뷰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과제를 한 적이 있었다.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마는 자세히 설명해주며 당시의 고통에 꽤나 의연했다. 행복하지만 고통스러웠던 10개월 동안의 과정을 엄마는 그리워한다고 말하며 그 이야기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 모성의 사랑으로 마무리했다. 과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엄마가 진심으로 애청하기 때문이다. 장윤정, 도경완 부부의 도연우, 도하영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과거를 회상하는 기쁨으로 시청한다. 아이들의 행동이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을 꼭 빼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째는 나와 이름이 같고, 머리카락 솟이 적은 것 까지 같아 감정 이입하기 딱 좋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남매의 모습이 비슷하고 그 남매를 키웠을 때 엄마의 나이가 지금 내 나이와 같아져서 그런지 엄마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기 시작했다. 나는 미혼에 자녀도 없지만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엄마는 엄마라는 이름의 길을 홀로 걸으며 내게 힌트를 남겨두었다. 그것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나 또한 덤덤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엄마를 쫓아가려면 나는 아직 멀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겐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것.



카페베네 매장 외관 환경 개선 사업 조금 더 두터운 희망

페인트칠의 두께만큼
두터운 희망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속에서,
매장을 찾아 외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며
변화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진심 어린 배려가 담길 때
더 밝은 미래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카페베네는 앞으로도 모두가 어려울 때
행동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은 덧칠하고
어려움은 덜어낸 이번 사업이

점주님께 오늘의 아름다운
밝은 희망으로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하루를 보낼 거고,
그럼 좋은 한 주가 될 거고,

좋은 한 해가 될 거고,
좋은 일생이 될 거야.

- 영화, 인사이드아웃 (Inside Out, 2015)

사진 김하영

카페베네 원두 스토리

글 이보라

"내가 그 조그만 세계를 음미할 때, 풍경은 나를 축복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하여 中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커피를 조그마한 세계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록색의 작은 열매로 시작해 선별, 로스팅, 분쇄, 추출이라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풍미와 향을 뽑내는 커피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커피 한 잔에는 작고 복잡한 세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보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한 카페베네의 노력.

알고 마시면 더 맛있을 거예요.

커피의 맛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부터

원두에는 한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생두 고유의 특징과 매력이 주인공처럼 또렷하게 드러나죠.
카페베네는 그런 원두의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자 좋은 생두를 수급하고
생두 한 알에 담긴 개성을 오롯이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수준 높은 원두의 품질과 끊임없는 철저한 관리가 바로 그 기본의 첫걸음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카페베네는 브라질 이파네마 농장 단독 계약을 통한 원두,
에티오피아 시다모 지역에서 온 G2 등급의 원두, 과테말라 스페셜 티 커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생두의 신선한 품질이 테이블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일원적 관리 체계하에
중간 유통과정에서 올 수 있는 품질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커피를 향한 카페베네의 진정한 마음이 더욱 깊은 맛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10년의 시간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함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돈독해지죠. 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베네는 브라질 이파네마(Ipanema Coffees) 단일 농장에서 2010년부터 원두를 공급받으며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파네마 농장은 1969년 브라질에 설립된, 단일 커피농장 최대 규모의 스페셜티 생두 전문농장입니다.
해발 1200m 고도의 전용 농장에서 50만 그루 이상의 커피나무가 재배되고 있죠.
이곳에는 카페베네 팻말이 10년 넘게 꽃혀 있습니다. 이 넓은 농장에 오직 카페베네만을 위한 농장이 있는 것이죠.
팻말이 의미하는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 믿음, 앞으로도 함께할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파네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카페베네 원두 농장을 따로 마련하여 관리하고,
오늘도 균일한 품질의 신선한 원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파네마는 최신식 설비를 마련하여 추적이 가능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카페베네는 이파네마와 직거래를 하기에 생산되는 원두의 품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고품질의 원두를 고객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파네마가 보내온 정성이 어떤 곳에도 분실되지 않고
고객 여러분 앞에 단 한 잔의 커피로 고스란히 담기고 있는 것이죠.
이파네마는 또한 카페베네와 함께 다양한 프로세스로 생산된 신선한 생두를 테스트하며
매해 품질을 더 좋게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파네마의 생두는 신뢰와 약속이라는 가치를 담아 10년 넘게 고객님의 테이블 앞에 배송돼왔습니다.
더 좋은 원두를 위해 카페베네와 이파네마가 나아갈 앞으로의 10년 또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베네만의 맛과 향, 미디엄 로스팅

로스팅 하기 전의 초록색 생두에는 사실 우리가 커피에서 느끼는 그윽하고 깊은 향과 맛이 전혀 없습니다. 생두 속에 숨어 있는 맛과 향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바로 로스팅입니다. 로스팅이란 생두에 열을 가하여 볶는 것으로,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커피 맛과 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약하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강하게 로스팅 할수록 쓴맛이 강해집니다.

로스팅은 일반적으로 원두를 매우 약하게 볶는 라이트 로스팅부터 가장 강하게 볶는 다크로스팅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카페베네는 미디엄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엄 로스팅은 이쯤처럼 중간 수준으로 원두를 볶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은 갈색 또는 밤색을 띠며, 쓴맛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카페베네의 미디엄 로스팅으로 완성된 좋은 원두의 부드러운 신맛, 단맛, 약간 쓴맛을 커피 한 잔을 통해 적절히 느껴보세요.

조화로운 커피 한 잔을 위한 노력

로스팅이 원두가 가진 고유한 맛을 끌어내는 작업이라면 블렌딩은 이 고유한 맛을 배합하여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무조건 종류를 많이 혼합했다고 해서 좋은 블렌드 커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비싼 생두를 사용했다고 해서 꼭 커피의 향미가 최고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블렌딩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도를 통해 누적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카페베네는 그간 축적된 커피에 대한 경험을 담아 카페베네 스페셜티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스페셜티를 최고의 배합으로 블렌딩하여 자몽의 쌉싸름하면서도 새콤한 풍미, 볶은 곡물과 견과류의 고소함, 브라운 슈가의 은은한 단 맛을 느낄 수 있죠. 각각의 원두가 가진 각기 다른 개성과 향미가 사라지지 않고 잘 어우러진 카페베네 스페셜티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서로 다른 원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맛과 향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빼고 매력은 더하다

커피를 마시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카페인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습관적으로 커피를 섭취하는 이들도 있지만,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느끼고자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상당수죠.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면서 카페인의 섭취는 줄이고 싶은 이들에게 아주 적절한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디카페인 커피(decaffeinated coffee)'입니다.

커피의 아로마는 유지하면서 카페인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카페베네의 디카페인 커피는 이산화탄소 방식(CO2 Process)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은 화학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물과 이산화탄소, 두 가지의 자연 요소만을 사용하여 카페인을 추출합니다.

화학 용해제를 사용하지 않기에 커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 다른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커피 고유의 향미가 더 좋게 유지되죠. 오늘 하루, 본인이 생각한 하루 커피 소비량의 임계치에 다다라 아쉬움이 남는다면?

걱정 말고 카페베네 콜드브루 디카페인 한 잔으로 커피 향을 맘껏 머금어보도록 해요. 디카페인 커피가 선사하는 커피 향에 취해 오히려 숙면을 취할지도 모르니까요.

한 잔의 커피에 사용된 원두는 최소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다가와 준 원두의 여정에 우리가 한 발 더 다가서고, 커피 또한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한 잔이 될 수 있도록 원두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카페베네의 커피 한 잔,
오늘 카페베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 우리가 함께한 사계절

SPRING

냉동실에 눈사람을 넣어둔 적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겨울을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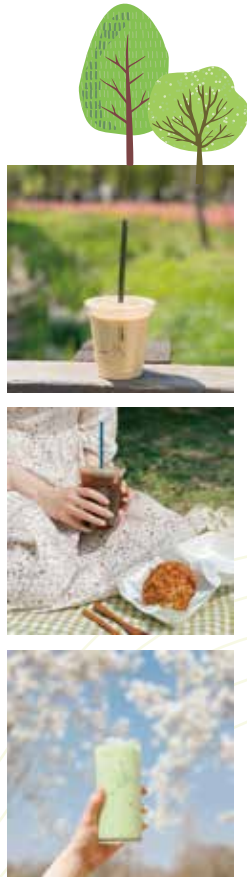
하지만 언젠가
눈사람은 냉동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봄이 왔던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간직하고 싶지만
놓아줘야 하는 것들이 있죠

잡히지 않는 것을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새로운 봄이 온다고 믿습니다



안녕, 우리가 함께한 사계절

SUMMER

봄은 알록달록한 핑크빛으로
여름에는 눈부신 푸르름으로

계절은 그렇게
저마다의 감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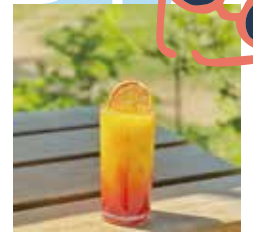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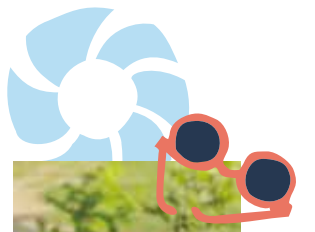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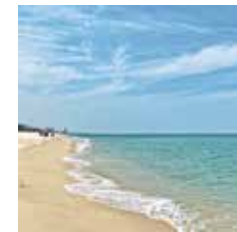
매번 겪어도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끈적한 무더위를 피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여름 바다 앞에 서죠 -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식혀주는 '바닷 바람'

기분 좋은 따스함만 전하는
'여름 햇살'

두 눈에 담아도 담아도
어쩐지 부족한 '파랑 빛깔'이

찬란한 여름 바다 앞에서
올해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어볼까요?



안녕, 우리가 함께한 사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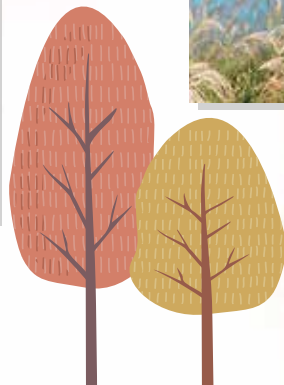
AUTUMN

사각 열음 동- 동-
머리가 핑할 정도로 차가운
'아아'의 계절, 여름에서

따뜻한 품미로 마음까지 데우는
'따아'의 계절, 가을로

옷이 조금 두터워졌고
바람은 더욱 쌀쌀해졌고
그래서 따뜻한 커피도 더
보드랍게 느껴집니다

아침저녁으로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계절 가을입니다



안녕, 우리가 함께한 사계절

WINTER



유난히 버거웠던 하루. 어떤 말들,
어떤 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만의 안식처를 찾는 일은,
내 마음의 옷과 꼭 맞는
커피를 마시는 일과 같습니다

밀려있던 숙제들을 모두 끝낸 한낮 오후엔
달콤한 아이스 라떼를 마시고
내일이 걱정되어 밤이 길어지는 날에는
썩쓸한 카푸치노를 마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을 지나가다 보면
내 안의 가장 부드럽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소실되고
부스레기만 남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나의 안식처,
한 잔의 커피에 기대어 볼래요



카페베네
신규 매장을
소개합니다

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요즘

카페베네는 우리 동네 카페와 같은
편안함에 신규 컨셉의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감각을 지닌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과 동네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설계된 이번 매장들은
서로 다른 개성으로 새롭고
베네캣과 함께하여 '나다움'을 추구하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현장에 직접 찾아가면 베네캣 리포터가
막 매장 소개 글을 정리해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베네캣 리포터! 오픈 전부터 우리를 설레게 한
이번 신규 매장들은 무엇이 다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New

카페베네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점 & 대극장점



베네캣 리포터는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점의 블루 컬러 지붕을 참 좋아하는답니다. 대리석 벽면으로 이어지는 지붕은 한여름에는 차가운 느낌을, 한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을 줘서 바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의 옷을 꺼입는 매장이니 올 때마다 우리의 예술 감각을 새롭게 깨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도 하고요, 저는 예술동점 통유리창 앞에 앉아 광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도 있어요. 야외 공연이 있는 날에는 바깥으로 나가 파라솔 아래에서 공연을 관람하기도 해요.

실내 공연 관람 고객님들은 대극장점을 이용하면 된답니다. 공연 시간에 맞춰 특별하게 열리는 대극장점은 관객들이 찾는 시간대에만 오픈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개성을 달리하는 예술을 닦는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예술동점과 대극장점은 문화 예술 심터 같은 카페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보다 예술적인 저, 베네캣! 을 만나보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세종문화회관 뒤쪽 작은 광장 & 중앙계단 위치)
08:00~22:00 (연중무휴)

New
카페베네 수진역점



수진역점 근처에 사거리가 있듯, 카페베네 수진역점은 네 가지 방향성과 다양한 사람이라는 색깔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역 근처라는 특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깐 머무르기에도, 미팅이나 스터디를 하기 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베네캣 리포터에게 여운을 남긴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수진역점의 우드 색 기둥과 그 색깔 그대로 이어지는 천장은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전달해주었는데, 매장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따뜻함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배치된 조명과 하얀색으로 정성스럽게 칠한 벽면은 매장의 분위기를 더욱 포근하게 더해주었어요.

수진역 사거리에 크게 생긴 새로운 카페베네에서, 베네캣처럼 나다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삼성대로 208, 1층 115호
(성남동, 신한타워)
08:00 ~ 22:00 / 031-759-7733

New
카페베네 소래포구역점



이 매장에 머물고 있으면 바다와 파도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여기는 바로 작은 항구 소래포구 근처에 위치한 카페베네 소래포구역점이기예요! 매장 앞에 도착하면 파도가 여운을 남기고 간 듯 맑은 기포가 연상되는 하얀 매장이 여러분을 먼저 반겨줄 거예요.

여름이 아닌 겨울에 찾은 카페베네 소래포구역점은 감춰왔던 모습을 보여줘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눈과 화이트톤의 매장이 제법 잘 어울려 겨울 항구 특유의 운치를 자아내고 있었답니다. 겨울 바다는 그 나름대로의 낭만이 있으니, 꼭 겨울에도 들려 그 매력을 확인해보세요! 카페베네 소래포구역점은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좌석을 매장 곳곳에 배치하여 시선을 돌릴 때마다 우리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건네줘요. 이곳 소래포구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저 베네캣을 만나보세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22, 1층
평일 10:00~24:00 / 주말 10:00~01:00am
032-421-7666

New
카페베네 경북예천점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84
10:00~22:00 (휴무일 : 매주 화요일)
054-654-0088



“삼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자리한 카페베네 경북예천점은 하얀색과 푸른색의 뚜렷한 대비로 더욱 밝아 보였어요. 매장을 둘러보며 우선 테라스 공간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해봤는데요, 글썽, 매장 전체가 하나의 모던한 버스 정류소를 연상시키는 느낌이라구요. 매장 앞에 설치된 담장은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을 더해주고, 입구에 설치된! 제가 그려진! 베네캣 광고 배너는 이곳이 휴식을 취하기에 적합한 정류소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트막한 공원과 근처에 있는 천으로 둘러싸인 경북 예천점은 내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 신비한 버스가 되어 줄 것만 같아요. 카페베네 경북예천점에 들러서 오늘의 일상을 재밌는 모험과 여행의 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New
카페베네 팔복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1길 21
평일 08:00~22:00 / 주말 10:00 ~ 22:00
063-717-0872



“팔복동에 도착하자마자 오늘도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알겠더라고요! 산업단지였던 공간에 예술과 문화가 골목 가득 채워지고 있어 팔복동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팔복동 근처에 자리한 전주천은 생물이 살 수 없었지만 최근 1급수가 됐다고 해요. 녹색 생명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 카페베네가 오픈했다는 것은 카페베네 역시 동네와 함께 변화의 시작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거예요. 팔복동 카페베네는 공간 자체로 동네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자 했어요. 팔복점에서 특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는 루바 소재로 마감한 천장에 있었는데요, 비스듬하게 마감된 루바 곳곳에 숨어 있는 천장 조명은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과 빛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줘서 새로웠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카페베네 팔복점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New
카페베네 논현역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논현빌딩, 1층
평일 07:30~22:00 / 주말 09:00~22:00
02-546-5999



논현역점은 매장 입구부터 투 도어로 두 팔 벌려 손님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합한 디자인의 입구는 저 베네캣과 함께여서 논현역 주변 분위기가 더욱 밝고 산뜻하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장소를 카페베네 시그니처 담장으로 분리해 매장 내에 '우리 동네 카페'와 같은 색다른 공간을 만든 것도 주목해볼 만 해요.



카페베네 논현역점의 또 다른 자랑은 물론! 넓은 평수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저 베네캣이에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창가에서 커피를 즐기는 베네캣의 모습은 논현동의 바쁘게 흘러가는 거리와 대비되며 우리에게 여유와 편안함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의 빛나는 대화를 통유리창으로 더 밝게비춰주는 곳 카페베네 논현역점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해 보시기를 바라요!



좋은 ‘배려’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논어(論語)의 ‘인’ (仁), 그리고 카페베네의 ‘배려’

논어(論語)는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내용은 길고, 형식은 지루하지요. 게다가 원문은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번역본을 봐도 그 해석이 역자에 따라 다 다르기에 그 누구의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독자들이 가까이 두고 편하게 읽게 되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생기거나, 내 삶의 방향에 대하여 현명한 답을 찾고 싶을 때 반드시 찾게 되는 책 중의 하나입니다.

논어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의 여지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넓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논어를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읽다 보면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그 해석의 다양성이 결국은 하나의 통일된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논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문장 뒤에 숨어있는 진의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져 논어를 굉장히 불친절한 책으로 느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자인 공자(孔子)를 매우 일관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여지마저도 생깁니다.

불친절의 예를 들면, 논어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지는 핵심 사상인 ‘인(仁)’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서 공자님께서 ‘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뿐 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논어 독자들조차도 쉽사리 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이 가진 근원적인 속성 중의 하나입니다. 누가 물어도 주저주저하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역으로 논어 속의 ‘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과 그를 둘러싼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여 진심으로 ‘배려’하려는 시도도 논어 속의 ‘인’과 사뭇 닮아 있습니다.

‘仁’이라는 글자는 ‘사람 人’ 변에 ‘두 二’ 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품성을 의미합니다. 논어는 다양한 예를 통하여 사람들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배려’를 반드시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에 더해져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는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인’이다.”

다른 제자도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깊게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인’이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은 왜 그렇게 매번 다릅니까?”

“그렇게 매번 다른 것이 ‘인’이다.”

공자님의 모든 제자들이 ‘인’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서 제자에게는 깊게 생각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인’이라고 하시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제자에게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답하십니다. 묻는 사람의 품성과 묻는 상황이 다르니 그 대답도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서 다르게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어 속의 ‘인’은 카페베네의 핵심 가치 ‘배려’와 일맥상통합니다.

2.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배려를 건네는 방법 - 카페베네의 핵심 가치 ‘배려’

카페베네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배려’는 공자님께서 논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과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배려’는 논어의 ‘인’처럼 모든 상황에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카페베네의 핵심가치인 ‘배려’의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다면, ‘배려’를 받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여야만 하기에 우리는 매번 다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진정성은 옳은 ‘배려’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배려’란 결국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라고 느껴야 진정한 배려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간에 그리고 가맹점 사장님들 혹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받는 분들에게는 배려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창한 목표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배려심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카페베네가 추구하는 ‘배려’는 공자님의 ‘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배려를 하되, 우리와 관계를 맺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는 자세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베네가 그 필요함의 일부를 채우는 데에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CAFFE BENE

홈페이지 www.caffebene.co.kr
 인스타그램 @caffebene_official
 페이스북 /caffebene_official

발행인 김영선
 편집장 이보라

Communication
roka@caffebene.co.kr
 02 - 3438 - 6854

주소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5, 8층

제작 | 카페베네
 창간 | 2021년 5월 28일
 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에디터	오광록	roka@caffebene.co.kr
디자이너	김규리	gyul@caffebene.co.kr
	이혜명	hyem@caffebene.co.kr
글	오광록	roka@caffebene.co.kr
	이보라	iboibo@caffebene.co.kr
	김영선	
기고	임도희	lynays12@gmail.com
	배정운	viacp123@gmail.com
	김하영	tthantthan@gmail.com
포토그래퍼	김하영	deepbluc@naver.com
	이보라	iboibo@caffebene.co.kr
	성상현	pinosha@naver.com
그림	정가현	menthatea@naver.com
폰트	사용	나눔 손글씨체
	서체	G마켓 산스 제주명조